인도네시아 수마트라/바탐 강재모,김지연

선교사의 2021년 6월 선교 편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5년 단기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1년씩 비자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처음 1~2년은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 학생 비자를 받을 때가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 비자 진행의 경우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1년씩 "신학교 교수 비자, 현지 교단 목회자 비자를 받다가 지금은 저희 "한-인도네시아 선교 재단"의 선교사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비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85%가 무슬림이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90%이상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비자>를 받는 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도 많은 제약과 매년 추가되는 서류들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6개월의 시간과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로소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5년 단기 영주권을 받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분들의 기도, 특히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5년 단기영주권 진행에는 7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6월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선교 사역 협의와 백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2. 선교 편지

페이스 북을 통하여 나누었던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나눕니다.

참 감사하게도. . . .

1. 에벤에셀 학교에 기증품으로 "손 세정제"가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수량으로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2. 선교사로서 항상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래서 가끔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피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이번에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니 감사하고도 기뻤습니다.
3. 개인 여행사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본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성도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 입니다.
4. 주님께서 그 분께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누게 하신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 가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5. 여호와 이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며. . .

1. 코로나 사태로 작년 초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었습니다.
2.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하여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3. 연초에 상황이 나아져서 학생들을 나누어 등교 수업을 하다가 최근 다시금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온라인 수업이 되었습니다.
4. 어려운 시대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초등학교 건물 지붕 수리와 천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 건축한지 2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계속 수리하지 않으면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외벽 도색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에벤에셀 중학교 졸업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코로나로 인하여 졸업식을 못하고 각 반별로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2021년 6월, 7월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계속 악화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저희 에벤에셀 학교의 선생님과 가족들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하였지만 확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백신이 원활하게 인도네시아 땅에 공급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가 더욱 왕성하게 이 땅에 일어나기를....

1.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하여

- 6월 말 한국 도착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마치고 7월 초부터 사역 협의와 후원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만남들을 한국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기존 카카오 톡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임시 한국폰 번호는 010-6894-1150입니다.)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건강하게 선교지로 복귀 할 수 있도록

2. 계속 진행 중인 2021년 7월 시작되는 신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작년보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재 학생 모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모집을 하여 7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치부가 조기 등록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 특히 중학생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초등학교까지는 어려워도 기독학교를 보내려고 하지만 둘째, 셋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가 무료인 공립 중학교(90%이상의 무슬림 교사와 학생으로 이슬람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음) 진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 6월 29일 현재 등록 / 목표 모집 인원:

□유치원 62명/60목표 (105% 초과) **□초등 1학년 신입생 90명/100목표 (90% 등록)**

□중등1학년 신입생 47명/64목표(75% 등록) **□고등 1학년 신입생 27명/30목표 (90% 등록)**

3. 기증받은 여름 샌달을 판매 하여서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바탐 지역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수 개월째 못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가정의 경우 저축한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낼뿐 아니라 생계도 어려워 시골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판매와 더불어 계속해서 고아원, 교회 등에 무료로 기증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전체 3개의 컨테이너 중 1개의 컨테이너 분량이 완제품이 아니라서 추가 상판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원해 주신 한국의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시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를 기도합니다.

4. 풍굴지역 학교 부지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 풍굴 지역 부지 문제는 소강상태입니다. 법률 대리인으로 Pak Tomi(빡토미)씨를 통하여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매월 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후원의 손길이 연결되도록 (바탐 구입시 50개 들이 한화 약5천원)

6.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입니다

  (현재 약 15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약 3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kangjaemo1004 강재모선교사 kangjaemo@hanmail.net / 김지연선교사 wec1004@hanmail.net

후원계좌 예금주 강재모/ 시티은행 8910153025501 우리은행 1002-730-785647